

언론담화 선거기사의 비유적 표현의 은유 이론적 분석*

김 해 연
(중앙대학교)

Kim, Haeyeon. (2016). A Metaphor-Theoretical Analysis of Articles on Election in Korean Media Discourse. *Language Research*, 52.3, 393-420.

El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ormal decision-making processes by which a population chooses representatives in a democratic society. News articles on election often use figurative expressions in reporting election-related events. This research explores how election is viewed in media discourse and what metaphors are at work in the use of figurative expressions in terms of Metaphor Theory (MT). Examination of reports on election shows that election is viewed as waging wars, playing sports games in most cases, displaying metaphors such as ELECTION IS WAR/WAGING BATTLES and ELECTION IS PLAYING (SPORTS) GAMES, among others. This research also shows that some of the particular processes or aspects of election are mapped on prominent aspects of wars/battles, sports, games in denoting metaphorical meanings. This fact suggests that metaphors are at work for figurative meanings by matching the abstract notions in the target domains and concrete entities in the source domains. In sum, this research argues that MT is a useful tool fo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metaphorically extended meanings of the terms of war, battles, sports, games, and so on in representing the competitive nature of election in written media discourse.

Keywords: Media discourse, election, metaphor theory, conceptual metaphor, target domains, source domains, the ELECTION IS WAR/BATTLES metaphor, the ELECTION IS (PLAYING) SPORTS GAMES metaphor, metaphorically extended meanings

* 이 논문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어떤 오류나 부족한 점은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이 논문의 일부는 김해연, 이용은, 남성현, 김하나(2016)로 발표되었다.

1. 서 론

선거는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하고 구성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여러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근대 민주 사회에서는 선거를 통해 조직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안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대표자를 선출하여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기도 하며 선출된 자는 사회 조직의 공인된 직위에 취임하여 권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선거는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대표자를 뽑는 정치행위라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중요 관심사이며 그런 점에서 선거와 관련된 많은 용어가 있고 선거를 묘사하고 기술하는 여러 문자적, 비유적 표현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보며 이를 어떻게 나타내는가라는 점은 정치, 경제, 사회적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 특히 비유적 표현들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선거의 여러 양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비유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람들이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여 비유적으로 나타내는가를 언론담화에 나타나는 선거 관련 표현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인지언어학의 은유 이론(*metaphor theory*)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Lakoff & Johnson (1980)이 일상의 많은 비유적 표현들을 인지적, 언어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후, 은유 이론은 인지언어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많은 학자들은 은유 이론을 적용하여 언어의 비유적 사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Dancygier & Sweetser 2014; Deignan 2005; Dirven & Pörings 2003; Kövecses 2002; Lakoff 1987, 1993). 이들 연구들은 일상의 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많은 비유적 표현이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metaphorically extended meanings*)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은유적 의미를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로 설명하여 은유 이론이 비유적 의미 사용의 인지 구조(*cognitive mechanism*)를 밝혀내는 데에 있어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ancygier & Sweetser 2014; Kövecses 2002; Lakoff & Johnson 1980).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출마(出馬)’, ‘대권 레이스’, ‘잠룡(潛龍)’, ‘대선 주자(走者)’ 등과 같은 선거 관련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관련 용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용어들은 운동 경기나 전쟁/전투를 기술하는 데에 사용하는 어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의 예문들은 그러한 어휘의 몇 가지 용례들로서 선거 관련 텍스트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가) [사설] 새누리 전대, 친박 패권 세력 척결 계기 돼야

새누리당이 어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공식 **선거전**에 들어갔다. 다음달 9일 전당대회에서 2년 임기의 새 대표가 선출되겠지만 **경선전**은 지금 대중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홍행** 실패는 당권 도전자들이 ... (중앙일보 2016.07.29.)

(나) 당권 도전에서 대권 ‘큰 꿈’까지... 여야 힘 받는 50대 기수론

새누리당은 차기 당 대표와 **대선주자** 후보군에서 더민주당에 비해 눈에 띄는 50대 기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 대선까지 바라보던 주요 50대 기수들이 **낙마**한 타격이 크다. 이 때문에 차차기 **대선주자**로 지목되던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조기 **등판**이 나온다. (동아일보 2016.04.20.)

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를 다루는 언론담화에서 선거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다. 즉, (1가)에서 ‘선거전’과 ‘경선전’은 선거를 하나의 전쟁 또는 전투로, ‘홍행’은 ‘로드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나)에서 ‘기수’, ‘대선주자’, ‘낙마’, ‘등판’과 같은 용어들은 선거를 승마(경기), 달리기, 또는 야구 경기로 보는 인지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예들을 볼 때, 선거 또는 선거 관련 정치 기사에서 운동 경기와 같은 분야의 용어들이 사용되어 비유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자/필자가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여 언어로 표현하는가라는 점에서 그 인지적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선거와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을 조사하여 비유적 표현의 인지적 원리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첫째로 기존의 연구에서 선거를 다루는 논문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은유 이론을 간단히 소개한다. 둘째로, 본 연구는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등 연구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분석 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 인터넷 포털에서 선거 관련 검색어를 선정하고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언론담화에서 비유적 사용의 용례를 조사하고 그 용례들은 분류하고 정리한다. 셋째로, 본 논문에서는 선거를 다루는 언론담화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을 유형별로, 즉 예를 들어 선거를 전쟁/전투로 보는 경우나 운동 경기로 비유하는 표현들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그 예들을 제시한다. 넷째로, 본 연구는 선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비유적 의미 사용에는 어떠한 은유가 작동되는지를 분석하여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선거 관련 언론담화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을 은유 이론의 관점에

서 분석해서 그 인지적 구조를 보여줄 수 있다는 논의를 통해 이러한 연구가 타 분야의 담화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의 연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배경: 은유 이론과 선거 담화에 대한 선행 연구

제2절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선거 관련 기존의 언어학적 연구를 검토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인지언어학의 은유 이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선거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기존의 연구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연구의 내용과 한계점을 보이고자 한다.

은유 이론은 Lakoff & Johnson (L&J 1980)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L&J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즉 ‘인생은 나그넷길’, ‘시간은 돈’, ‘설전(舌戰)’, ‘언쟁’과 같은 표현들을 은유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L&J의 주장을 받아들여 많은 학자들이 은유와 환유를 비롯한 비유적 표현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있어 은유 이론이 유용한 것임을 보여주었다(Barcelona 2003; Dancygier & Sweetser 2014; Deignan 2005; Dirven & Pörings 2003; Kövecses 2002; Lakoff 1987). 은유 이론에 따르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목표영역(target domain)에 설정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원천영역(source domain)에 설정되어 이 두 영역이 사상(mapping) 또는 대응 관계를 이루어 비유적 의미가 표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¹⁾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은유 이론은 일상생활의 많은 비유적 표현은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유 이론은 과거 문학이나 수사학의 연구 주제였던 직유, 은유, 환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인지적 관점에서 새로이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배경으로 선거에 대한 언어학적 관점의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도록 한다. 선거와 관련된 언어 표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정치 담화(political discourse)의 일부로 다루어진 것도 있고 선거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몇몇

1) L&J에 따르면 ‘인생(life)’이나 ‘시간(time)’, ‘언쟁(argument)’ 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나그넷길’이나 ‘돈/재화’,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대상과 대응 관계를 맺어서 각각의 경우 [인생은 나그넷길/여행이다(LIFE IS A JOURNEY)], [시간은 돈/재화이다(TIME IS MONEY/COMMODITY)], [언쟁(言爭)은 전쟁이다(AN ARGUMENT IS WAR)]라는 은유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Kövecses 2002).

Lakoff & Johnson (1980)은 은유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소 대문자(small capital letter)로 표기하는 것을 규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에는 대소문자 구별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따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개념으로서의 은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을 사용하기로 한다(임혜원 1997).

기존 연구가 있다(Andersson 2011; Bartož 2012, 2014; Chilton & Ilyin 1993; Deignan 2005; Howe 1988; Otieno 2016; 임혜원 1997).

Otieno (2016)는 정치 담화에 나타나는 은유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정치 담화 분야의 몇몇 논문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 소개 논문에 따르면 Wei (2001)는 타이완 정치 담화 분석을 통해 선거를 ‘결혼’, ‘홍행 산업(show business)’, ‘전쟁’, ‘기후’, ‘금융 거래(financial transaction)’라는 은유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estermarck (2007)는 정치 담화를 의인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역사회로서의 세상(THE WORLD AS A COMMUNITY)], [사람으로서의 국가(NATION AS A PERSON)] 그리고 [국가의 행위는 인간 행위(NATION ACTING AS HUMAN)]라는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를 제시하였다. Taiwo (2010)는 나이지리아 정치 담화를 분석하여 국가를 가족과 개인으로 보는 개념적 은유가 있음을 보이고 나아가 [정치는 전투(POLITICS AS BATTLE)], [정치는 여행(POLITICS AS A JOURNEY)], 그리고 [정치인은 건축가(POLITICIAN AS A BUILDER)]라는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

Howe (1988)는 1980-1985년까지의 정치 분야 담화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에서의 정치 담화에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은 운동 경기(sports)와 전쟁의 용어들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Howe는 선거와 정치가들의 언어의 수식적 사용에서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은 정치는 규정을 지키면서 경쟁(rule-bound contest)을 한다는 점에서 스포츠 은유(sports metaphor)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권력/힘의 행사(unpredictable exercise of power)라는 점에서 전쟁 은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Deignan (2005)과 Kövecses (2002)는 영어에 [선거는 경마이다(ELECTIONS ARE HORSE-RACING)] 은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artož (2012, 2014)는 언론담화를 조사하여 슬로베니아와 미국의 선거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Bartož (2012:126)는 슬로베니아의 선거 보도 담화에서는 선거를 경쟁, 전투, 여행 등으로 보는 은유가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은유를 제시하였다: (i) [선거는 경쟁이다(ELECTIONS ARE A CONTEST)], (ii) [선거는 전투이다(ELECTIONS ARE A BATTLE/COMBAT)], (iii) [선거는 여행이다(ELECTIONS ARE A JOURNEY)], (iv) [선거는 날씨 변화이다(ELECTIONS ARE WEATHER CHANGES)], (v) [선거는 홍행 쇼이다(ELECTIONS ARE A SHOW)].

국어의 언론담화에서 선거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은 임혜원(1997)이 있는데, 임혜원은 선거 기사문에 나타나는 선거의 여러 양상을 묘사하는 데에 나타나는 용어의 비유적 사용을 [선거는 전쟁이다]이라는 은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²⁾ 임혜원은 선거를 구성 요소 또는 국면을 선거의 대결 구도,

참여자, 장소, 계획, 도구, 상황, 방법, 결과로 나누어 이들 사건 구성 요소가 전쟁의 구성 요소와 대응관계를 가지면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선거는 전쟁] 은유가 작동되고 있음을 예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정치를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도 일부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운동 경기에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을 은유 이론을 적용해서 분석하여 ‘정치는 운동 경기’라는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Bergh 2011; Chen 2009).³⁾ 이와 같이, 정치는 때로 운동 경기에 비교되며, 선거도 정치에서 중요한 행동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선거는 운동 경기’라는 은유도 성립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선거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정치 활동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또한 언어 표현에도 그 중요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와 선거 관련 행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특히 은유 이론적 관점의 분석이 몇몇 있었지만, 국어학계에서는 [선거는 전쟁]이라는 은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임혜원(1997)이 거의 유일한 연구이고 해외의 몇 가지 연구들의 결과는 단편적이거나 국어에 나타나는 은유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 관련 기사의 비유적 표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불완전하며, 한국어에 있어서 선거에 대한 은유 이론적 연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언론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선거 관련 기사문을 조사하여 선거 관련 용어의 다양한 비유적 사용의 모습을 은유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언론담화에서 선거의 비유적 사용의 자료 수집과 분석

선거와 선거 관련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찾기 위해서 언론담화를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행위로서의 선거의 여러 국면을 고려하여 선거 용어의 실제 사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례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www.naver.com 포털을 검색 엔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인터넷 포털은 다양한

2) 임혜원(1997:90)은 언론담화에서 [선거는 전쟁이다]라는 은유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그 외에도 [선거는 경기이다]와 [선거는 농업이다]라는 은유 등도 있음을 각주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3) Bergh (2011)는 축구 경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조사하여 ‘축구는 전쟁이다(FOOTBALL IS WAR)’라는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Chen (2009)은 권투경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은유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정치’, ‘사업’, ‘인생/경력’, ‘도덕’, ‘발전’ 등을 권투 경기와 대응 관계를 맺어 은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정치는 권투경기이다(POLITICS IS A BOXING GAME)]라는 은유를 제시하고 있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검색어에 대한 취사선택이 있어야 하고 그 검색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하는데, 여러 분야의 언론담화에서 주로 정치 담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⁴⁾ 본 연구에서는 여러 언론담화 자료 가운데 중앙 일간지 5종 즉,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경향의 5개 신문 기사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선거와 선거 관련 용어들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2017년 말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양대 선거를 전후하여 각 정당의 전당 대회 등 여러 선거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료 수집 대상 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정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이 기간을 설정하고 검색어로 ‘선거’, ‘대선’, ‘총선’, ‘대통령 선거’, ‘4.13총선’과 같은 검색어를 넣어 선거 기사문들을 검토하여 선거와 선거관련 용어들의 비유적 사용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기사문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그 원문을 검색하여 비유적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고 분류한다.

이와 같은 용례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 절에서는 먼저 선거의 과정과 여러 국면을 임혜원(199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 요소 또는 과정상의 국면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한 다음, 선거 관련 용어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예를 들어 논의하도록 한다. 그 다음으로 은유 이론에 입각하여 선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비유적 의미가 어떠한 은유에 의해 도출되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4. 선거의 구성 요소/과정의 제 국면(諸局面)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

본 절에서는 선거 기사에 나타나는 비유적 의미를 논의하기 위해 선거의 구성 요소 또는 선거의 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선거는 조직 사회 구성원의 의사 결정과 대표자 선출의 정치 활동으로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선거 관련 기사는 선거의 구성 요소 또는 과정의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혜원(1997)은 선거의 구성 요소로 대결 구도, 참여자, 장소, 계획, 도구, 상황, 방법, 결과로 나누어 각 구성 요소 또는 과정을 묘사하는 언어 표현, 특히

4) 인터넷 포털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선거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자 하면 온갖 종류의 텍스트들이 다 검색 대상이 되는데, 언론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해도 일간지, 경제전문지, 스포츠연예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수십 종이 검색 대상으로 제공되어 분석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는 중앙일간지 5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필요시 다른 언론 자료를 추가로 검색하여 예시 자료로 삼도록 한다.

여기서는 여러 언론담화 자료 가운데 중앙 일간지 5종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 일간지는 다음과 같다: (i) 조선일보[조선], (ii)동아일보[동아], (iii) 중앙일보[중앙], (iv)한겨레신문[한겨레], (v) 경향신문[경향].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른 언론사의 선거 관련 기사문도 조사하여 예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비유적 표현을 분석하여 [선거는 전쟁이다]라는 은유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의 구성 요소/과정을 후보자, 입후보, 선거구, 선거 전략, 유세/득표 활동, 경쟁 양상, 선거의 결과로 나누어 이 과정을 보도하는 기사문에서 어떠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조사하도록 한다.

첫째, 선거의 구성요소로서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요소는 선거에의 참여자, 즉 선거 후보자를 들 수 있다. 언론담화에서 선거 후보자들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 용어들을 조사해 보면 ‘주자’, ‘잠룡’, ‘(선발) 투수’, ‘기수’, ‘전사’, ‘용사’, ‘다크 호스(dark horse)’ 등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가) 당권 도전에서 대권 ‘큰 꿈’까지... 여야 힘 받는 50대 기수론

새누리당은 차기 당 대표와 대선주자 후보군에서 더민주당에 비해 눈에 띄는 50대 기수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총선에서 대선까지 바라보던 주요 50대 기수들이 **남마한** 타격이 크다. 이 때문에 차차기 **대선주자**로 지목되던 남경필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의 조기 등판론이 나온다. (동아일보 2016.04.20.)

(나) [4·13 총선] 박원순, 원내 영향력 축소될 듯 ‘박원순 키즈’ 2명만 국회 입성... 야권 재편 땀 **구원등판** 가능성

... 하지만 총선 이후 더민주 내부의 권력구도 재편 과정에서 **‘구원투수’**이자 **‘대권 잠룡’**으로서의 박 시장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신문 2016.04.14)

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당대표 등 대표 직위를 차지하기 위해 나서는 후보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가)에서 대통령 후보를 달리기 경주(競走) 용어인 ‘(대권) 주자’와 경마 용어 ‘기수’로, (2나)에서는 야구 용어인 ‘(구원) 투수’로, 상상의 동물인 ‘(대권) 잠룡’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 나서고자 하는 후보자들을 단순히 대통령/국회의원 후보자라고 하지 않고 달리기 경주, 경마 또는 야구 등과 같은 운동 경기의 선수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러한 후보자를 권투 선수로 나타내거나 전쟁의 장수나 전사(戰士)로 비유하여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선거에 있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대의 기관의 대표가 되기 위한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후보자로서 나서겠다는 즉, 입후보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거나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비유적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 (3) (가) [사실] 나라 사방이 다 막혔는데 大選 경쟁은 벌써 열기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에 이어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사실상 정계 복귀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종 사업들을 공약처럼 발표하고 있다. (조선일보 2016.09.05.)
- (나) 안희정 “DJ·노무현 큰아들 될 것” 문재인 대세론에 맞불 1년3개월 앞둔 대선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다. ... 당내 **차기 주자들이 서둘러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중앙일보 2016.09.01.)
- (다) 오세훈·김문수 ‘큰 꿈’ 가물…불펜 남경필·원희룡 **등판 채비** ... 하지만 여당의 사정이 급박해지면서 이들에 대해 “일단 불펜(구원 투수 대기석)에서 **마운드에 세워 봐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2016.04.14.)

위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서거나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3가)에서 “출마를 선언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말을 타고 나가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 “전쟁에 나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표현이 선거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 “후보자로 나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3나)에서는 “차기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쟁에 나가는 결의를 담은 문서를 신하가 황제에게 올린 것에서 유래한 비유적 표현이다.⁵⁾ (3다)에서는 정당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세우는 정치 행위를 “마운드에 세우다”라는 표현으로, 후보자로 나서고자 하는 행위를 “등판 (채비)”이라는 야구 용어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서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후보로 세우는 정치 행위를 전쟁에 나아가는 결의나 운동 경기에 임하는 태도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선거에서 대의원,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책,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게 된다.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전쟁 용어로는 전략이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며, 그 외에도 여러 방법과 수단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운동 경기나 오락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다음은 그러한 몇 가지 예들이다.

5) ‘출사표’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아뢰는 문서를 가리키는데, “출사표를 던지다”는 삼국지의 제갈공명이 전쟁에 나가면서 결연한 의지를 유선(劉禪) 황제에게 올린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가) 與野, 오늘 본회의서 추경 처리키로

야당에선 “정부·여당이 말로만 그렇지 실제론 추경이 급하지 않은가 보다”고 했고, 여당은 “경제를 망가뜨려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야당의 전략”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6.09.01.)

(나) [뉴스 깊이보기] “트럼프를 막아라” 공화당의 ‘100일 작전’

...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트럼프를 아웃시키는 작전의 1차 과제는 공화당의 마지막 경선일인 6월7일까지... 50개 주 전체에서 ...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제 3의 무소속 ... (경향신문 2016.03.20.)

(다) 與, 판 흔들 ‘최경환 변수’... 더민주, 관세 가를 親文의 선택

.. 친문 진영이 전대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이후 열릴 대선 후보 경선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2016.06.14.)

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는 데, (4가)에서 전쟁 용어인 ‘전략’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략’은 원래 군사용어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어 유리한 지위, 위치를 획득하거나 승리를 위해 세워야 하는 계획이나 수단 또는 방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나)에서는 군사용어 “행동계획”, “작전” 등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4다)에서는 바둑 용어로 ‘포석’이 사용되는데, 이는 “바둑에서 대국 초반에 집 차지에 유리하도록 돌을 벌여 놓는 일”([표준])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입후보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선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쟁, 또는 대결 구도도 선거의 요소 또는 선거 과정의 한 국면이다. 선거에서 국회의원, 대통령, 당대표, 또는 지방의회 대의원 등 대표로 뽑히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기사문들은 선거에서의 경쟁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 또는 전투에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5) (가) 野는 힘 자랑, 與는 품으로 저항... 20代국회의 압축관

지난 이틀 국회의 모습은 여야가 결전을 벌일 내년 대선까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전개될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완력 과시한 野, 무기 없는 與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지난 이틀간의... (조선일보 2016.09.03.)

- (나) 정세균 의장과 도토리들의 키 재기
 의장까지 대선 **전초전(前哨戰)**에 가세하니 국회 상황은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달을 것이다. (동아일보 2016.09.03.)
- (다) 어머니는 “탈퇴” 딸은 “잔류”... 가족도 갈라선 브렉시트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잔류·탈퇴 **진영의 공방전**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1일 오후 BBC방송이 주최한 토론회에선 양 **진영이 격돌**했다. 방청객 6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일보 2016.06.23.)

위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의 경쟁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 많은 전쟁 관련 용어들이 사용된다. 즉, (5가)에서는 대선을 “결전(決戰)”으로 나타내고, 선거를 염두에 둔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힘 자랑”, “몸으로 저항”, “완력”, “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능력, 자원과 선거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고 있다. (5나)에서는 대선을 전쟁에 비유하여 국회의장의 정치 활동을 “전초전”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5다)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선거 양상을 각 “진영(陣營)의 공방전(攻防戰)”, “양 진영의 격돌”로 표현하여 투표 유세 과정에서의 토론회를 전투로 비유하여 치열한 찬반 논의를 전투 용어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선거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니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 “백병전”, “박빙의 승부”,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다”, “(유례없는)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등과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다섯째, 선거의 또 다른 요소로 선거 운동과 유세가 진행되는 장소, 즉 선거구를 들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전국 단위이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각 지역별로 선거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언론 기사문에서 어떠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6) (가) 상전벽해! 예전엔 **덧밭**, 20대 총선에서는 **격전지**
 호남의 조직세가 강한 지역구여서 더민주의 **덧밭**이었던 이 지역구가 이번 총선에서 일여다야라는 선거구도 때문에 세 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격전지**로 변한 것이다... (경향신문 2016.04.09.)
- (나) 힐러리, 예상 깨고 ‘러스트 벨트’도 접수... “굿바이 샌더스”
 샌더스는 이날 회심의 **일격엔** 실패했지만 일회일비하지 않고 **경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다음 **전장**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이날 애리조나 주에서 선거 유세에... (동아일보 2016.03.17.)

위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에서는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선거구를 “덧밭”으로,

그리고 경쟁의 치열함을 같이 보여주기 위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격전지”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나)에서는 선거 유세지를 “전장”으로 나타내고, 또한 선거의 치열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선거관련 기사문에서는 선거 장소와 치열함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 “적진”, “승부처” “격돌지”, “(유리한) 고지”, “입성/수성(에 성공)” 등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섯째, 선거의 여러 과정 또는 국면으로 의안의 결정이나 후보자의 당선 여부를 확정하는 결과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언론담화의 선거관련 기사문은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보도하는 데에 있어 여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 (가) 더민주, 전대 8월 말~9월 초 개최...당분간 ‘김종인 체제’로
총선 축배가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절충안 만장일치’를 이끌어
냈다. 발언에 나선 당선자 대부분... (경향신문 2016.05.03.)

(나) 대선 끝나자... 다시 목청 높이는 그때 그 사람들
“총선 결과를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고 셀프(self) 수상의 월계
관을 쓰려는 자들은 자중 자애하라...” (조선일보 2016.04.18.)

위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 비유적 표현이 종종 사용된다. 즉, (7가)에서는 선거에서 당선이 되는 경우를 “(승리의) 축배를 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선거의 승리를 축제의 관점에서 나타내는 표현이다. 물론 이에 대비되는 표현은 “고배를 마시다” 또는 “패배의 쓴 잔을 마시다”라는 것이다. (7나)에서는 “월계관을 쓰다”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드물게 ‘(승리의) 면류관을 쓰다’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달리기, 특히 마라톤 우승자에게 월계수로 관을 만들어 씌운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오히려 ‘당선/낙선’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당선/낙선’ 대신에 사용되는 ‘(선거에서) 이기다/지다’, ‘승리하다/패배하다’, ‘완승’, ‘패배’와 같은 표현은 선거를 전쟁이나 운동 경기로 보고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5. 선거 기사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에 대한 은유 이론적 분석

우리는 앞 절에서 언론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선거 관련 기사문에서 선거를 보도할 때 어떠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는지를 조사하여 보여 주었다. 즉, 선거 기사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을 선거의 과정, 요소, 국면들을 고려하여 후보자, 선거 운동의 경쟁, 유세, 득표 활동의 재원, 선거 결과 등의 여러 과정으로 나누어 보여 주었다. 이러한 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 보도 기사문에서는 당선을 위한 후보자들의 득표활동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기 위해 전쟁, 전투, 운동 경기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쟁, 운동 경기, 오락 등이 선거와 어떻게 대응관계를 갖고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비유적 의미의 사용의 양상을 설명하도록 한다(Lakoff & Johnson 1980).

5.1. [선거는 전쟁/전투이다] 은유

선거를 전쟁 또는 전투에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을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으로 한국어에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Lakoff & Johnson 1980; Kövecses 2002; 임혜원 1997). 이 은유에서는 선거의 여러 요소와 국면을 보이기 위해서 전쟁 또는 전투의 여러 요소와 양상을 묘사하는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다음은 그 몇 가지 예들이다.

(8) (가) “힐러리 최대약점은 참모들이 약점의 실체 모른다는 것”

“11월 미국 대선은 선과 악의 **최후전쟁**, 즉 아마겟돈이다. 부패한 거짓말쟁이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하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미국은 더 이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마겟돈**에서 **승리**해야 미국이 산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칸소 주지사 당선과 2차례의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유명한 선거 전략가 딕 모리스(70)가 신간 ‘**아마겟돈**-트럼프가 클린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서 이런 주장을 하며 반(反)클린턴 **전선**의 **최선**두에 섰다. (동아일보 2016.09.01.)

(나) “영남 현역의원 **혈투** 예고” ..., 김재원-김종태 **정면 승부**

...황영철 의원(홍천·횡성)의 지역구가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과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의 지역구로 각각 쪼개져 **블게** 된 강원에서는 황 의원의 거취가... (국민일보 2016.02.28.)

- (다) 佛 좌파 정부의 親시장 30代 장관, 대선 출마 위해 사임...
영국 BBC는 “사임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대선 **출정식** 같았다”며 “마크롱의 내년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됐다”고 했다. 2014년 경제 장관에 취임한 마크롱은 그동안 좌파... (조선일보 2016.09.01.)
- (라) 문재인-안철수 부산서 ‘대선 **전초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30일 나란히 고향인 영남 지역에서 PK (부산경남) 민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동아일보 2016.08.31.)

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여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는 그 경쟁의 치열함이 마치 전쟁을 치루는 것 같다는 점에서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된다. 즉, (8가)에서 미국 대선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선(戰線)의 최선두”, “승리”와 같이 마치 전쟁 상황을 보도하는 것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8나)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혈투”, “정면 승부”, “(싸움을) 붙다”와 같이 전투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선거 경쟁의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8다)에서는 “대선 출마가 마치 대선 출정식(出征式)과 같았다”고 하여 대선을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갖는 예식인 출정식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라)에서는 잠정 후보들의 행보를 “대선 전초전(前哨戰)”이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선거를 전쟁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예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언론 기사들은 선거 활동을 전쟁 용어를 사용해서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도하고 있다.

선거에는 여러 과정, 국면, 요소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전쟁관련 용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임혜원 1997).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 (9) (가) ‘여름 휴지기’ 끝낸 클린턴-트럼프, 오하이오서 첫 격돌
전통적으로 대선 후보들은 여름동안 **실탄(선거자금)** 비축을 위한 모금 행사와 조직 및 선거**전략** 준비를 벌인 뒤 노동절부터 결승날(11월8일 대선)까지 광고 등을 쏟아 부으며 **전력질주**를 벌인다. 정치전문 매체 인... (한겨레신문 2016.09.06.)
- (나) [황호택 칼럼] 나라를 흔드는 ‘민정수석의 전쟁’
때로는 임기 말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맹렬히 **화살**을 쏘아대는 야당과 언론 그리고 비박(비박근혜) 세력으로... (동아일보 2016.08.31.)

(다) [뉴스룸 레터] 핑크 타이드 퇴조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 (중앙일보 2016.09.02.)

위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에서 후보자가 투표를 통해 상대 후보들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여 대표로 선출되기 위한 과정에는 여러 과정과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요소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9가)에서 미국 대선을 보도하는 기사문에서 선거자금을 “실탄”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대책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9나)에서 서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판, 비방, 설전을 “회살을 쏘아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9다)에서는 후보자들의 유리한 상황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다”라는 전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거를 논하는 기사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선거 기사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나타내는 경쟁의 치열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투”, “혈투”, “최대의 격전지”, “사수”, “선방”, “승리”, “패배”, “패색”, “수성(守城)”, “배수진” 등과 같은 전투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 기사문에서 전쟁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선거를 전쟁/전투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비유적 표현의 사용에는 [선거는 전쟁/전투이다]라는 은유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2. [선거는 운동 경기이다] 은유

선거는 또 다른 분야의 용어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그 경쟁의 치열함을 나타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운동 경기이다. 운동 경기는 서로 편을 나누어 경쟁을 통해 이기고 지는 승부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경기가 치열하다는 점에서 선거와 같은 속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조사 결과, 여러 운동 경기 중에서 달리기 경주, 야구와 관련된 경기 용어가 선거의 과정과 양상을 묘사하는 데에 많이 사용되고, 그 외에도 경마, 권투, 검도 등의 용어도 일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선거는 운동 경기이다(ELECTION IS (PLAYING) SPORTS GAMES)] 은유가 비유적 표현의 사용에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운동 경기로 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경기 용어가 선거 기사문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되는지 그 용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5.2.1. [선거는 경주이다] 은유

선거는 선거 운동의 개시,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운동, 유권자들의 투표, 개표 그리고 선거 결과 공표로 당선자 확정이라는 과정의 타임라인(timeline)을 가진다. 이러한 선거에서의 일련의 과정은 운동 경기, 그중에서 출발점과 결승점이 분명하고 선수들이 서로 승리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는 달리기 경주와 유사성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언론담화에서는 선거를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여 보도하는 예들을 볼 수 있다.

(10) (가) [4·13 총선] 살생부 파동·막장 공천 ... 새누리 참패·더민주 선전 왜 더민주는 ... ‘법정관리인’으로 등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과감한 현역 컷오프(공천배제)의 칼자루를 휘둘러 **선거 레이스 초반** 분위기를 장악했다. ... (서울신문 2016.04.14.)

(나) [윤희웅의 SNS 민심] 기형적 대선 구도 보여 준 ‘컨벤션’ 효과 ... 새누리당의 **대권 주자들이** 총선에서 사실상 동반 침몰하면서 대안 부재로 보수층의 시선이 반 총장에게 모아졌기 때문이다. ... 반 총장의 **행보**로 대선 박동이 빨라졌다. 벌써부터 **전력 질주**하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2016.06.03.)

(다) 손학규 “죽을 각오로 나를 던지겠다”
손 전 고문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축제 전날인 이날 ‘백의종군’, ‘의병 정신’을 강조하며 대선 **출발선** 앞에 섰다.
(경향신문 2016.09.03.)

위 (10)의 예들은 선거를 경주로 비유하여 나타내는 것들이다. 즉, (10가)에서는 “선거레이스 (초반)”이라는 표현으로 선거를 달리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나)에서 대선 후보자들을 “대선 주자(走者)”라고 하여 달리기 선수로 비유하고 있으며, (10다)에서는 “출발선”이라는 용어로 마찬가지로 선거의 시작을 달리기 경주의 출발선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문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거를 보도하는 데에 있어서 운동 경기의 하나인 달리기 경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거는 경주이다(ELECTION IS RACING)] 은유가 작동된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⁶⁾ 즉, 선거와 달리기에서의 경쟁의 치열함과 승리의 최종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과 당선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에서 선거와 달리기가 대응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은유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6) 물론 경주는 100, 200, 400, 1,000m 달리기 경주, 그리고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등 거리에 따라 세분화된 종목이 있지만, ‘선거는 경주이다’라는 은유에서 선거는 거리에 따라 이처럼 세분화된 달리기 종목으로서보다는 단순히 전체를 포괄하는 달리기 경주로서 비유 대상이 된다.

5.2.2. [선거는 야구 경기이다] 은유

운동 경기 가운데서 야구도 때에 따라 선거의 양상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된다. 야구는 양 편으로 나누어 선수들이 협력하여 승부를 겨룬다는 점에서 선거의 양상을 묘사하는 데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11) (가) 김무성 ‘옥새 투쟁’ 결과 반응 “장고 끝 악수” vs “적시 안타”

...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김 대표가 **홈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시타** 정도는 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김 대표의 ‘옥새(玉璽) 투쟁’으로 최악... (조선일보 2016.03.25.)

(나) ‘볼펜투수’ 안희정, 마운드에 오르다

...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볼펜투수**’를 자처하며... 안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 (한겨레 2016.09.02.)

(다) “노장 **구원투수** 김종인, 현역 **물갈이투 던진다**”

김 위원장은 위기의 당을 살릴 ‘**노장 구원투수**’로 긴급투입된 뒤 초반부터 ‘강한 카리스마’로 장악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첫 일성으로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한다 ...” (국민일보 2016.01.26.)

위 (11)의 예들은 야구 용어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을 보여 주는데, (11가)에서는 “장고 끝에 악수”라는 바둑의 격언과 함께, “적시 안타”와 “홈런”이, (11나)에서는 “볼펜 투수”와 “마운드”가, (11다)에서는 “구원투수(가) ... 물갈이투 던진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를 다시 보면, 선거에서의 예비 후보자를 야구의 ‘볼펜 투수’로, 입후보하는 것을 ‘마운드에 오르는 것’ 즉, ‘등판(登板)’으로, 선거 공천을 위한 정치 투쟁 행위를 ‘적시 안타’ 또는 ‘홈런’으로, 새로운 당 대표 선대위원장을 원래 타자가 경기 운용을 잘못했을 때 새로 투입되는 ‘구원투수’로, 현역의원들을 공천 배제하는 것을 ‘물갈이 투(投) 던진다’는 것으로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정치가들의 정치 활동을 야구 용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선거는 야구(경기)이다(ELECTION IS A BASEBALL GAME)]라는 은유가 작동되기 때문이다(김해연 2016a). 그 외에도 야구 용어는 때때로 선거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는데, ‘견제구’도 선거에서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에 사용되어, [선거는 야구경기이다]라는 은유가 작동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5.2.3. 기타 운동 경기와 선거: [선거는 권투(시합)/경마/검술이다] 은유

자료 조사에서 보면 선거를 운동 경기의 대응 관계를 맺도록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주와 야구에 비교적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운동 경기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일부 자료에서는 권투, 경마, 검술을 선거와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용례는 제한적인데,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 (12) (가) 그러나 박 시장 측 핵심 관계자는 “대선 경선이라는 링 위에 오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권이나. 말이 아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대선 후보임을 증명할 것”이라며 대선 도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조선일보 2016.09.02.)
- (나) 이렇게 해서 친야(親野) 아닌 친여(親與) 유권자들이 대거 이탈해 여당에 결정타를 날렸고, 친여 아닌 광주-호남 유권자들이 친노(親盧)-친문(親文)-486 운동권에 치명타를 먹였다. (뉴데일리 2016.04.21.)
- (다) “반총장 출마 뜻 강하지만 승리 보장 없는 ‘진검승부’ 피할 것” 이를 두고 “반 총장 쪽이 새누리당 안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한겨레신문 2016.05.30.)
- (라) 구원투수 없는 與... 벤치 밖 ‘50대 기수들’ 주목
여권 일각에서는 이 세 사람의 ‘조기등판론’이 꾸준히 거론된다. 특히 남 지사는 23일 총선에서 낙선한... 그러나 이들이 당장 등판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일보 2016.04.25.)

(12)의 예들은 운동 경기들 가운데서 선거를 묘사하는 데에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제한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다. 즉, (12가)에서 ‘링 위에 오르다’는 권투 경기를 묘사하는 용어인데, 후보 경선 또는 선거에 나서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12나)에서 “결정타”와 “치명타”는 경우에 따라 야구 경기 용어일 수도 있지만 권투 경기에도 흔히 쓰는 표현인데, 역시 선거와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다)에서 검술 시합으로 ‘진검승부’라는 표현이 경선에서 후보자들 간의 대결 양상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12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수’는 경마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선거에서의 후보자를 일컫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와 같은 예들을 볼 때, 비록 그 용례가 많지는 않으나 언론담화에서 기사문은 선거를 때로는 권투 경기, 검술 시합, 또는 경마 용어를 사용하여 선거의 다양한 성격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다.

5.3. [선거는 바둑(두기)이다] 은유

바둑은 중국에서 오래 전에 시작된 여가 오락의 하나로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오락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바둑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이기고 지는 승부가 있으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여러 방책들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바둑 용어들이 생겨났다.7) 채완(2006)은 국어에 사용되는 바둑 용어의 사용 실태와 비유적 사용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다. 김혜연(2016b)은 언론담화를 분석하여 바둑 용어의 비유적 사용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바둑용어는 우리의 일상 언어에 흔히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정치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언론담화, 특히 정치 분야 신문 기사문에서는 정치를 흔히 바둑 두기에 비유하고, 바둑 용어를 정치 활동의 여러 국면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 활동의 하나인 선거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바둑 용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13) (가) 바둑판 닳은 총선 판도 점검

... ‘추가 컷오프’ 명단 공개가 늦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속사정 등을 집중 점검해 본다. **지충수**, **패착** 등 바둑의 세계와 너무 닳은 이번 총선 **판도** 조망해 본다. (동아일보 2016.03.10.)

(나) 반기문 대망론 잠재우려?...문재인·박원순 줄줄이 충북행

충북은 2017년 대선의 ‘상수’로 떠오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고 자란 곳이어서 ‘반기문 대망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겨레신문 2016.05.31.)

(다) “내가 흑인 학살 멈출 것” 트럼프, **판세반전** 안간힘

(동아일보 2016.08.31.)

위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바둑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즉, (13가)에서 ‘지충수’, ‘패착’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바둑의 세계와 너무 닳은” 2016년 총선의 모습을 점검해 보여주고 있다. (13나)에서는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둔 예상 후보자들의 행보를 ‘포석’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13다)에서는 선거의 양상을 바둑용어인 “(바둑)판세”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선거의 여러 국면을 바둑 용어로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은 ‘선거는 바둑(두기)이다’라는 은유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7) 바둑용어들은 바둑판과 바둑돌에 대한 명칭을 비롯하여 바둑 규칙, 전략과 전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은 바둑놀이에서 흔히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들이다: ‘계가(計家)/집 세기’, ‘곤마(困馬)’, ‘꽃놀이패’, ‘끝내기’, ‘담’, ‘대마(大馬)’, ‘만패불청(萬羈不聽)’, ‘맥’, ‘미생(未生)’, ‘변’, ‘불계승(不計勝)’, ‘박’, ‘사석(死石)’, ‘사활(死活)’, ‘수읽기’, ‘완생(完生)’, ‘잡’, ‘착수(着手)’, ‘천원(天元)’, ‘초읽기’, ‘패싸움’, ‘팻감’, ‘포석(布石)’, ‘행마(行馬)’, ‘호구(虎口)’ 등. 이처럼 많은 바둑 용어들은 바둑판의 모양을 묘사하거나, 바둑의 규칙과 바둑을 두는 전략을 가리키거나, 그리고 바둑을 둘 때 바둑돌이 바둑판에 놓인 모양을 묘사하는 데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이러한 바둑 용어들 가운데 ‘착수’, ‘사활’, ‘담’, ‘포석’, ‘정석’, ‘행마’, ‘불계승’, ‘호구’, ‘꽃놀이패’, ‘완생’, ‘미생’ 등과 같은 경우는 일상의 언어에도 비유적인 의미로 종종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 이외에도 바둑용어가 정치 담화,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훈수’, ‘정석’, ‘꽃놀이패’, ‘꼼수’ 등과 같은 용어들이 그러한 경우이다.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14) (가) 물갈이와 절박한 수도권 선거연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외부의 **훈수**가 현실정치의 벽을 넘기는 힘들다... (경향신문 2016.03.14.)

(나) 안철수·천정배 투톱 연말까지 유지키로

... 주 원내대표는 “경선이 **정석(定石)**이긴 하지만 박 의원이 추대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출마하지 않을 용의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안 대표 측...” (조선일보 2016.04.26.)

(다) 민주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 정당정치

꼼수 공천이 성공하면 내 덕이고, 잘못됐도 어쩔 수 없다는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경향신문 2016.03.20.)

위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둑용어들이 선거의 여러 국면을 비유적으로 묘사하여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데, (14가)에서 ‘훈수’는 “외부의 조언”, (14나)에서 ‘정석’은 “표준 규칙/원칙”, (14다)에서 ‘꼼수’는 “변칙적/비상식적 행동”, 그리고 ‘꽃놀이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가 나지 않는 방법” 등과 같은 의미로 바둑용어의 비유적 사용을 볼 수 있다.

바둑용어가 이와 같이 선거 기사문에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은 [선거는 바둑(두기)이다(ELECTION IS PLAYING-GO)]라는 은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해연 2016b). 물론 여기서도 선거의 모든 국면에 다 바둑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선거의 어떤 특정 국면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 가장 적절한 바둑 용어를 취사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 기타: [선거는 농사이다] 은유, [선거는 흥행(쇼)이다] 은유, [선거는 용의 승천이다] 은유

지금까지 선거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을 분야별로 조사해 왔는데, 언론담화의 선거 관련 기사문에서 비록 그 예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몇 가지 분야를 보면, 선거를 농사로 보는 경우와 선거를 흥행(쇼)으로 보는 경우이다.

첫째로, 언론담화에서는 선거를 흥행으로 보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도 역시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미’가 있어야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선거 관련 기사에서는 선거를

홍행으로 표현하는 예를 볼 수 있다.

(15) (가) [김민아 칼럼]문재인, 목표가 대통령인가

2002년 상반기, ... 당시 새천년민주당 경선은 노풍(盧風·노무현 바람)의 영향으로 연일 **홍행 대박**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경선은 이 회창 대세론 속에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 (경향신문 2016.08.29.)

(나) 미 대선 D-100...도널드 트럼프, 막말도 선거 자산

... 한편 클린턴은 지난 28일 마친 전당대회 **홍행효과**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했다. (중앙일보 2016.08.01.)

위 (15)의 예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기사문들은 선거관련 보도에 있어서 선거를 하나의 **홍행**으로 나타내고 있다. 정치와 정치 지도자들의 통치와 정치활동은 국가와 사회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중요 관심사이고, 선거도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홍행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기사들은 선거를 **홍행사업**과 대응관계를 갖도록 하여 [선거는 **홍행**이다(ELECTION IS A SHOW BUSINESS/ ENTERTAINMENT)]라는 은유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⁸⁾

둘째로, 언론담화에서는 선거를 농사로 보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발견되는데, 선거구를 ‘**텃밭**’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미리 암묵적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표밭을 갈다/가꾸다**’와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예들이다.

(16) (가) 새누리 ‘**텃밭**’ 영남...무소속·야당후보 약진에 ‘**균열**’ 조짐

오랫동안 **표밭을 갈아온** 야당 후보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8석 중 16석을... (한겨레 2016.03.30.)

(나) 새누리 “그 많던 **친박**은 다 어디로 갔나”

... **텃밭**인 대구와 부산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 ...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그나마 지지도가 높은 후보들은 출마를 고사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밭갈이**를 해온 출마 예상자는 뜨지 않는 이중고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4.01.21.)

8) 한국어에서 ‘쇼’는 **홍행**이라는 긍정적 또는 중립적 의미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i) [뉴스분석] 여야 특권 농기, **쇼** 말고 리얼 액션 보여라

‘새 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은 선거비용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지도부가 붕괴됐다. ‘도덕성’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보좌진의 정치 후원금 상납으로 ‘구태 정치의... (동아일보 2016.07.01.)

위 (16)의 예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선거관련 기사문에서 ‘선거’는 농사에 비유되어 나타나는데, ‘표밭’, ‘텃밭’, ‘밭갈이’, ‘(표밭을) 갈다/다지다’ 등과 같은 표현이 그러한 예들이다. 즉, (16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거의 승리가 확실한 지역 선거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집터에 딸리거나 집 가까이 있는 밭”(【표준】)이라는 뜻을 가진 ‘텃밭’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16나)에서와 같이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미리 지역사회 봉사 등 사회 활동을 통해 (암묵적) 선거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을 “(텃밭을) 가꾸다”, “밭갈이를 하다”, “(표밭을) 갈다/다지다” 등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농사에는 ‘파종’, ‘(논밭)갈이’, ‘김매기’, ‘가지치기’, ‘수확’ 등과 같은 여러 과정이 있다. 그러나 농사의 이런 여러 과정 가운데서 ‘텃밭’, ‘표밭’, ‘밭갈이’ 등 몇 가지 특정 어휘들만이 선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된다. 이러한 농사용어의 비유적 사용은 [선거는 농사이다(ELECTION IS FARMING)]라는 은유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선거를 용의 승천으로 비유하는 경우이다. 동양 문화에서 용은 신성하고 신비한 상상의 영물로 흔히 제왕(帝王)을 용으로 나타내어 ‘용안’, ‘용포/곤룡포’ ‘용종’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근대 시민사회에서도 대통령이 가장 높은 자리로 제왕에 비견된다는 점에서 잠재적 대통령 후보를 ‘잠룡’이라고 하는 용어를 신문 기사문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잠룡’은 선거를 “이무기가 승천하여 용이 된다”라는 도식을 갖고 있다고 하겠지만, 선거의 다른 요소나 과정에는 이런 도식에서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6. 은유 이론에서의 원천 영역과 목표 영역의 대응의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언론담화에서 선거 관련 기사문들이 여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주목하여, 비유적 표현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선거의 비유적 표현에는 전쟁/전투 관련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선거의 거의 모든 과정을 묘사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선거는 운동 경기에 비유되어 사용되는데 그중에서 달리기 경주와 야구 용어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일부의 예에서는 권투, 격마, 그리고 검술 용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선거는 여러 오락 가운데서 바둑 용어들을 사용한 비유적 표현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 분야로 언론담화에서는 선거를 흥행으로 또는 농사로 보는 예문들이 있었는데, 그 예문들의 용례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선거에 대한 기사에서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은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은유 이론에 따르면 비유적 표현은 나타내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나 사물을 목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구체적

대상이나 사물을 원천 영역으로 설정하여 대응관계를 맺도록 하는 사상(mapping)을 통해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은유 이론을 선거 기사문에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은 목표 영역의 선거 용어를 전쟁/전투, 달리기 경주, 야구 경기, 경마, 권투 시합, 검술 시합과 같은 운동 경기, 흥행(산업), 농사와 같은 분야를 원천 영역으로 하여 그 분야의 용어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선거 관련 기사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위와 같은 은유들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은 위의 모든 은유들이 다 같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과 어려움으로 엄밀한 계량적 분석을 하지는 않았으나 자료 조사를 통해 볼 때, [선거는 전쟁/전투] 은유가 가장 많은 용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운동 경기 가운데서 경주와 야구 용어가 나타나는 용례들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지만, 경마, 권투, 검술의 경우는 그 용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여러 운동 경기들이 있지만, 축구, 농구, 탁구, 골프 등의 분야의 용어들은 선거 기사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축구, 농구와 같은 경기는 단체 경기로 선수들이 단체적으로 협력하여 득점을 한다는 점에서 선거와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야의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⁹⁾ 오락으로는 비둑 용어가 비교적 높은 빈도로 비유적 표현에 나타났다. 선거를 흥행으로 보는 예는 다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농사 용어는 ‘텃밭’과 ‘표밭’이 대표적인 예들이지만 그 용례가 많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선거 관련 기사문에 나타나는 은유와 선거의 과정, 요소, 국면의 대응 관계를 대강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표 1. 선거의 과정/요소와 대응 분야 간의 관계와 사용 용어

선거과정/ 대응영역	후보자	입후보	선거구	선거 전략	유세/ 득표활동	경쟁양상	선거결과
전쟁/ 전투	장수/ 전사	전쟁에 나간다	격전지	전략 작전	전쟁 전투	전초전, 격전, 백병전,	수성, 승리
경주	주자					전력질주	월계관/ 면류관
야구	투수	등판	마운드	작전	피칭	건제구	승리

9) 달리기는 출발선과 결승점이 있다는 점에서 타임라인이 있는 선거의 과정과 대응관계를 맺기 쉽지만, 축구, 농구, 탁구와 같은 경기는 정해진 공간에서 수비와 공격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타임라인을 갖는 선거와 대응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다.

탁구의 경우 ‘핑퐁 외교’와 같은 비유적 표현은 탁구가 공을 주고받으면서 승부를 겨룬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주고받는 외교의 양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구와 외교가 대응관계를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골프의 경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말처럼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상호 경쟁적인 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골프 용어가 선거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선거과정/ 대응영역	후보자	입후보	선거구	선거 전략	유세/ 득표활동	경쟁양상	선거결과
경마	기수/ 다크호스	출마					승리/ 낙마
권투	선수	링에 오름	링				승리
바둑	바둑돌		바둑판		대국		승리
홍행업					홍행	홍행	성공/ 실패
농사			텃밭, 표밭		밭갈이		결실/ 수확
용의 승천	잠룡						승천

우리가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의 과정 또는 요소와 이에 대응관계를 갖는 분야의 용어들을 조사하여 이 두 영역의 대응 상태를 보았을 때, 빈칸(gap), 즉 대응의 결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쟁/전투 영역에서는 선거의 여러 요소와 과정에 해당되는 용어와 대응관계를 갖는 경우가 거의 다 있지만, 경마나 농사, 홍행 등에서는 선거의 각 요소나 과정에 해당되는 대응 용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 은유의 용례들에서 주목할 사항은 선거의 여러 과정과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분야의 용어는 선거의 여러 과정과 요소에 두루 나타나지만, 어떤 분야의 용어는 특정 과정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쟁/전투에 사용되는 용어는 선거의 여러 과정과 요소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술 용어는 ‘진검승부’, 권투 용어는 ‘링’, 농사 용어는 ‘텃밭’과 ‘표밭’ 등과 같이 극히 제한된 선거의 과정, 국면, 요소를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목표 영역과 원천 영역의 대응 관계를 이루는 데에 있어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은유 이론의 적용에 유의할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Deignan (2005)은 은유 이론이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제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시된 많은 은유를 경험적 증거(empirical evidence)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코퍼스 자료 분석을 통해서 기존의 은유에 수정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록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을 엄밀하게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선거 관련 은유에서 목표 영역과 원천 영역의 대응에서 모든 국면이 일대일 대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비록 선거가 여러 분야와 대응관계를 갖지만 대응 분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현저한 속성(salient attributes/properties)을 부각시키고(highlight) 다른 속성은 감추어(hide) 사상(mapping)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것이

다(Lakoff & Johnson 1980). 예컨대, 선거를 용의 승천과 대응관계를 갖도록 할 때, 후보자를 ‘잠룡’으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승천’으로 나타내지만 그 중간과정에 해당되는 대응 은유 표현들은 없다. 이는 용의 승천을 가장 현저한 속성으로 부각시키고 그 과정의 요소들의 속성은 감추어 은유적 표현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⁰⁾ 은유 이론에서는 어떤 속성을 선택하고 부각시키고 어떤 속성을 감추도록 하는기라는 인지적 기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¹¹⁾

7. 요약과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언론담화에서 선거를 보도하는 기사문에 많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터넷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다음 은유 이론을 적용하여 비유적 의미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대응 관계를 맺는 분야를 검토하여 여러 은유를 제시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언론담화에 대한 연구의 하나라 선거 기사문에서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였다. 은유 이론에 입각한 몇몇 정치 담화 연구들은 [정치는 운동 경기] 또는 [정치는 권투 경기]라는 은유를 제시하였다(Bergh 2011; Chen 2009; Howe 1988). 선거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 논의는 Bartož (2012, 2014)와 임혜원(1997)으로, Bartož (2012:126)는 슬로베니아의 선거 보도 담화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은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임혜원(1997)은 국어에서의 선거 기사문을 분석하여 [선거는 전쟁이다]라는 은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후, 본 연구는 국어 언론담화에서 선거기사의 비유적 표현이 전쟁/전투 용어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자료 조사를 통해 더 많은 분야에서 선거에 대한 비유적 표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터넷 포털의 검색기능을 사용하여 선거 관련 기사문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용어들을 조사하고 이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용어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선거 기사에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는 분야는 전쟁/전투 분야에서 가장 흔히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운동 경기 용어도 많이 사용되며 기타 분야에서도 제한적으로 나타난

10) 선거를 흥행으로 보는 은유 표현에서도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유세 활동을 흥행 행위와 대응 관계를 갖도록 하여 이 요소만 현저한 속성으로 부각시키고 나머지 요소들은 부각되지 않는다.

11) 이 문제와 관련하여 Dancygier & Sweetser (2014:20이하)는 Sullivan (2013)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영어 어휘 ‘bright’와 ‘brilliant’의 차이를 예를 들어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이 두 어휘의 차이를 INTELLIGENCE IS A LIGHT SOURCE와 CHEERFULNESS IS AMBIENT LIGHT LEVEL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즉, 운동 경기에 있어서 달리기 경주와 야구 분야의 용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제한적이지만 경마, 권투, 검술 시합 분야의 용어도 일부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운동 경기의 종류가 여럿 있지만, 이러한 운동 종목이 특별히 선거와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바둑을 선거와 관련시켜 바둑 용어를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선거를 흥행 활동이나 농사짓기로 보는 예들도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 조사가 장기간에 걸친 온갖 종류의 언론담화를 다 분석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또 다른 운동 경기나 오락, 그리고 기타 분야 즉 낚시, 어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도 선거관련 비유적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는 그러한 예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는 또 다른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은유이론적 관점에서 선거 보도에 나타난 비유를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라는 주장의 관점에서 비유적 사용에 작용하는 은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은유를 제시하였다: (i) [선거는 전쟁/전투이다], (ii) [선거는 운동 경기이다], (iii) [선거는 달리기 경주이다], (iv) [선거는 야구 경기이다], (v) [선거는 바둑이다] (vi) [선거는 경마이다], (vii) [선거는 권투 시합이다], (viii) [선거는 검술시합이다], (ix) [선거는 흥행이다], (x) [선거는 농사이다], (xi) [선거는 용의 승천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임혜원(1997)이 국어에서 [선거는 전쟁]이라는 은유만을 논의한 것을 넘어서는 연구 결과로 다른 분야/영역의 선거관련 비유적 표현의 사용에 대한 은유이론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구의 몇몇 학자들이 선거를 기후, 여행, 결혼, 금융 거래 등과 같은 은유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국어에서는 이러한 은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거 보도에 나타난 은유를 선거의 과정 또는 요소와 이에 대응관계를 갖는 분야의 용어들과 대응 관계를 조사해 보았을 때, 서로 대응이 되지 않는 빈칸(gap)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전쟁/전투 영역에서는 선거의 여러 요소와 과정에 해당되는 용어와 대응관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 발견되었지만, 경마, 권투, 농사, 흥행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그 대응관계에 있어서 빈칸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는 비록 선거는 여러 분야와 대응관계를 갖지만 각 분야의 현저한 속성과 대응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 두었다. 또한 Deignan (2005)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러 은유들의 제시는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경험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언론담화 자료 분석을 통해 선거 관련 보도문에서 선거의 여러 요소와 과정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비유적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비유적 의미를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로 보고, 이를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선거 보도문에 나타난 비유적 표현을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 본 연구는 앞으로 다른 분야, 영역의 비유적 표현의 인지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표준]).
- 김해연. (2016a). “야구 용어의 비유적 의미의 은유 이론적 분석”, 『언어』 41.2, 217-237.
- _____. (2016b). “바둑용어의 비유적 의미의 은유 이론적 분석”. 『담화와 인지』 23.4, 31-54.
- 김해연, 이용은, 남성현, 김하나. (2016). 선거기사의 비유적 표현에 대한 은유이론적 연구. 담화인지언어학회 2016 가을 학술대회. 한양대(서울).
- 임혜원. (1997). “선거 기사문에 나타난 은유: [선거는 전쟁이다]”, 『담화와 인지』 4.1, 89-110.
- 채완. (2006). “바둑 용어의 은유”, 『한국어 의미학』 20, 231-255.
- Andersson, Jens. (2011). A study on metaphor usage in the online sports sections of two British newspapers. Metaphor in writing project term paper for English linguistics course, school of language and literature G3, Linnaeus University. Barcelona, Antonio, ed. (2003). *Metaphor and Metonymy at the Crossroads*. Berlin: Mouton de Gruyter.
- Bergh, Gunnar. (2011). Football is war: A case study of minute-by-minute football commentary. Veredas on line-Temática, 83-93. PPG LINGUÍSTICA/UFJF-JUIZ DE FORA. ISSN 1982-2243.
- Bratož, Silva. (2012). Slovenian and US elections in Metaphor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Critical Approaches to Discourse Analysis across Disciplines*. Vol. 5 (2): 120-136. <http://cadaad.net/journal>.
- _____. (2014). Metaphors in political discourse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JEMS* Vol. 7.1, 3-23.
- Chen, Lan. (2009). The metaphorical use of boxing terms in everyday language. Kristianstad University College, The School of Teacher Education, C-essay in English Linguistics, English III, EN2301.
- Chilton, Paul and Mikhail Ilyin. (1993). Metaphor in political discourse. *Discourse and Society* 4.1, 7-31.
- Dancygier, Barbara and Eve Sweetser. (2014). *Figurative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ignan, Alice. (2005). *Metaphor and Corpus Linguistics*. Amsterdam: John

- Benjamins.
- Dirven, René and Ralf Pörings, eds. (2003). *Metaphor and Metonymy in Comparison and Contrast*. Berlin: Mouton de Gruyter.
- Howe, Nicholas. (1988). Metaphor in contemporary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Metaphor and Symbolic Activity* 3.2, 87-104.
- Kesić, Dalibor and Emir Muhić. (2013). Sports in metaphor and metaphor in sports. *SportLogia* 9.1, 28-33.
- Kövecses, Zoltan.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akoff, George.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ndrew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2nd edition, 202-2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 Otieno, Raphael Francis. (2016). Metaphors in political discourse: A review of selected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glish and Literature* 7.2, 21-26.
- Taiwo, Rotimi. (2010). Metaphors in Nigerian political discourse. Obafemi Awolowo University, Nigeria. pp. 219-235.
- Vestermark, Ida. (2007). Metaphors in politics: A study of the metaphorical personification of American political discourse, An Extended Essay. Lul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Culture.
- Wei, Jennifer M. (2001). The pragmatics of metaphor in Taiwanese politics. In Jennifer M. Wei, ed., *Virtual Missiles: Metaphors and Allusions in Taiwanese Political Campaigns*. 61-81. United States: Lexington Books.

김해연

06974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인문대 영문학과

전자우편 : haeykim@cau.ac.kr

접수일자 : 2016. 10. 31.

수정본 접수 : 2016. 12. 9.

게재결정 : 2016. 12. 15.